

# 친문후보들 잔치될까 세대교체론 힘 발휘할까

### 민주당 당대표 선거 오늘 컷오프 경선... 후보 3명은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26일 당대표 경선 예비경선을 치를 계획이어서 본선행에 가는 3명 후보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는 7선 이해찬(66), 5선 이종걸(61), 4선 김진표(71)·송영길(56)·최재성(52), 3선 이인영(54), 재선 박범계(55), 초선 김두관(59) 의원 등 8명이 경합하고 있다. 계파는 물론 연령대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 구도가 과거 전대와 비교할 때 한층 더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유권자이기에 표심이나 선택 기준이 일반당원이나 국민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전망을 어렵게 한다. 당 중앙위원은 최근 추가로 인준된 지역위원장을 포함해 4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내에선 출석률과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80~90표 정도 얻은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친문(친문재인) 후보들의 성적이 관심거리다. 일반적으로 친문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이해찬·김진표·최재성·박범계 의원이다. 송영길 후보는 광범위하게 '친

### 중앙위원들 전략적 선택 주목 호남후보 송영길 성적도 관심 친문후보 세대대결도 불가리

문' 또는 '범문'으로 불리지만 '호남후보'로도 불린다.

당 일각에선 컷오프 통과 후보 모두가 친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만큼 당 내에서 친문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중앙위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후보의 성적과 아울러 호남후보의 성적도 주목된다. 우선 유일한 호남 출신은 송영길 후보다. 특히 송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통합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부총리급)로 활동했기 때문에 친문세력이 원하는 정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이런 송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표를 준 호남의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총선 성적은 물론 당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중앙위원들의 판단이 관심을 끈다.

세대 대결도 주목거리다. 일단 8명 후보 중 5명이 50대다. 김진표 의원은 70대다. 이해찬 의원은 60대 중반이지만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노화하다'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경륜의 정치인으로 평가 받지만 50대의 거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사실상 이해찬·김진표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세대교체론이 예비경선에서 힘을 발휘할 경우 당내 역학구도를 넘어서는 결과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앙위원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혁신과 변화에서 찾는지, 안정과 경륜에서 찾는지의 컷오프 결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친문 후보 내에서 세대 대결도 불만하다. 최재성 의원이 "2004년 열린우리당 주역인 대선배들이 아직도 주역인데 그 정치체계를 극복할 때가 됐다"고, 박범계 의원이 "강한 리더십을 표방했는데 당원 직접 민주주의와 상충된다"고 각각 말하며 이해찬 의원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도 이 같은 경쟁 구도를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국민의 의식과 달리 중앙위원들의 표심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모든 예측을 뒤집는 이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명분도 예의도 없다”...野, ‘협치 내각’ 거부

### 한국·바른·평화당 모두 일축 여야 전대 후 논의 목소리도

각각을 고리로 하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 구성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물매를 맞고 있다. 최소한의 명분도, 예의도 없다는 것이 야당의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진통이 있지만 여야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물 밑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협치 내각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국민전환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정권이 보복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있다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엔 전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협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연정협약, 야당을 포함한 당·정·청 협의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제의 협치 내각 구성은) 몇 명의 허수아비 장관을 세워놓고 야당의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 구성은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 분위기가 있다.

민주당도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협치내각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협치라는 단어를 썼지만, 장관 몇 자리로 야당을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통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장관

자리로 야권을 떠보는 것은 현행 헌법과도, 정당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다”며 “협치 내각은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합의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협치와 연정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장관 한두 자리 주는 것은 협치도 연정도 아니다”고 밝혔다.

당 내부적으로는 온도 차이가 있다. 여권의 협치 내각 제의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당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협치 내각 제안이 결국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평화당의 통합의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기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협치 내각 구성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지만 “실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권이 보다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국방부·검찰 수사후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는 25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고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또 8월 임시국회를 열어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이를 위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법안 TF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여야는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임시국회 협의를 통해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선 입법심사권을 주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최영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에,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속세 떠난 선비 발 씻으며 후일 도모하였을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32) 탁족(濯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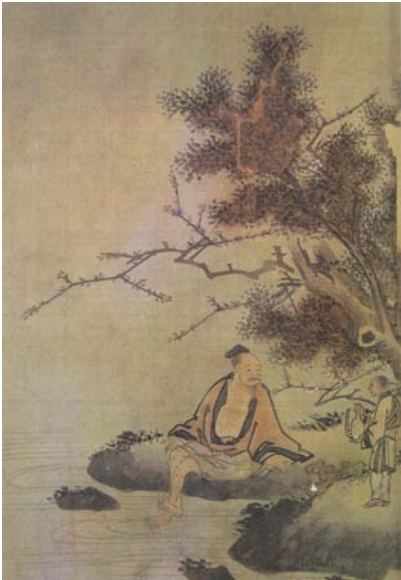
작열하는 태양, 잠 못 이루게 하는 최악의 열대야, 열을 넘게 이어진 폭염 기록행진은 찜통과 용광로 더위 등 더 뜨거운 온도를 상상하게 하는 단어를 총동원하게 한다. 열돔에 갇힌 듯 숨이 턱턱 막히는 올 여름 이 살인적 더위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기후가 갈수록 이상고온인 것도 사실이지만 냉방시설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좀처럼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옛 우리 선조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즐기는 최상의 풍속으로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

는 '탁족'을 즐겼고 또 그것만으로도 열기를 식힐 수 있었다. 조선시대 회화 가운데 냇물에 발을 담근 선비의 그림인 '탁족도'를 다수 만날 수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인 것 같다.

왕족 출신의 사대부 화가 이경운(1545-1611)의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는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선비와 정병 모양의 술병을 들고 있는 동자를 그린 전형적인 탁족도 형식의 그림이다. 얼마나 더웠는지 땀은 가슴까지 쏟아헤치고 무릎 위로 바지를 걷어 올린 채 발을 씻고 시원해하고 있다. 근경의 바위는 물에 잠긴 상황을 묘사하려는 지점은 먹빛으로 처리되고 냇물의 윗부분은 은은하게 동심원이 퍼져나가 동적인 기운이 감돈다.

그림의 내용은 중국 초나라의 굴원(기원전 343-278)이 맥각수에 투신하기 전날 강둑을 거닐다가 어부를 만나 주고받았다는 시와 관련이 깊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던 굴원에게 어부가 던진 "장랑의 물이 맑으면 갯간을 씻을 것이



이경운 작 '고사탁족도'

오, 장랑의 물이 흐르면 발을 씻으리라"라는 시구가 이 탁족도로 그려진 것이 다. 그림 속 한가로워 보이는 선비는 정외가 무너진 어지러운 속세를 미련 없이 떠나 발 씻으며 후일을 도모하였을까?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탁족은 피서의 의미를 넘어 군자의 이상, 덕목, 지혜를 아우르는 상징이기도 했다. <광주비인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 박사>

#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 국가에서 인증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장 볼때마다 확인하는 습관! 꼼꼼히 살펴보세요  
확인 한번으로 우리 가족의 식탁이 한층 더 건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